"문정왕후 어보 반환 주역은 불교계"

불교 문화재 환수 단체가 2009년부터 운동 시작해
2013년 반환 결정 이끌어
수 년간의 환수운동 과정
조계종 · 봉선사 · 미주 불교 스님 · 불자들이 지원해 와

혜문 "불교 역할 알려야"
어보 반환 기념하기 위한
회암사 무차대회 계획 중

문정왕후 어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다. 한미 정상화담의 성과로 대서특필됐지만, 어보가 돌아오기까지 숨은 주역은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약탈 · 불법유출된지 67년만에 문정왕후 어보가 돌아왔다. 어보 환수를 외교적 성과로 말하고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불교계 문화재환수운동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의 시작은 2009년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문제 제기부터다. 당시 봉선사 스님이었던 혜문 대표는 봉선사 · 회암사 사부대중과 함께 회암사 성보 환수 운동을 시작했다. 혜문 대표는 회암사 성보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조사했고, 2009년 뉴욕에서 문정왕후 어보 반환의 결정적 단서인 '미국 국무부 문서'를 찾아냈다. 문서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에 의해 조선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왕과 왕비 어보 47개가 약탈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환수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지만, 환수를 이루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원활한 조사를 위한 해외체류비용 등이 문제였다. 이를 지원한 것이 봉선사 사부대중이었다. 장기 체류 당시에는 미국 뉴저지 보리사, 뉴욕 원각사, 미주 불교문화원 등의 도움이 있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도 민족 문화재 환수라는 명분에 공감해, 공동 성명서와 반환요청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3년 9월 미국 소장처인 LA주립박물관에서 문정왕후 어보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려진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혜문 대표에 따르면 불자인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국새와 어보가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를 통해 환수를 위한 행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문정왕후 어보 반환은 봉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과 불자들, 미주 불교계, 북한 불교계 등이 10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수년간의 운동을 지원하고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불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칭찬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혜문 대표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정왕후 어보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중이다.

실제 조선불교 중흥에 나섰던 문정왕후와 허응 보우 스님은 1565년 4월 8일 회암사서 무차대회를 봉행해 새로운 도약을 기하려 했으나, 문정왕후가 무차대회를 3일 앞두고 사망해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혜문 대표는 문정왕후가 이루지 못했던 무차대회와 어보 반환 기념전을 회암사서 개최하자는 제안서를 7월 3일 양주시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혜문 대표는 "'500년 전 문정왕후와 허응 보우 스님의 꿈을 이루자'는 게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을 진행했던 진정한 이유"라며 "부처님 앞에 문정왕후 어보를 다시 모시고 왕과 백성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평등한 불국토를 기원하는 법회와 특별전이 회암사에 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문정왕후 어보. 한미 정상 회담 성과로 꼽히고 있지만, 반환되기까지 기틀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이 만들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 불교인재 양성에 매진하자"

동국대 경주캠 불교문화대학 발전위 발족

위원들 기금 3억 원 쾌척
2021년까지 10억 원 모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학장 김성철)은 6월 30일 교내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보당 스님(보국사 주지)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발족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이 맡았으며, 불교문화대학 총동창회와 기수별 학생회 임원, 교내 교직원과 학생 대표 및 외부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위원회는 △신입생 유치 시스템 구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불교문화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기금은 2021년까지 10억 원 모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발전위원들은 십시일반 모연해 기금 3억 원을 조성 · 전달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치사를 통해 "인재불사를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키우는 일은 불자의 사명이고 자존심"이라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방 최고의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동문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교 종립대학 위상과 역할 제고를 통해 우수한 불교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6월 30일 교내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불교로 논한다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산업' 발표자 간담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 · 증강 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에 대한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7월 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교와 4차산업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오는 12월 2~3일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앞두고 국내 발제자들의 연구 방향 등을 발표 ·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의 윤곽이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이 현대 사회의 화두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불교 학자 28명(국내 18명, 국외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국외 학자들의 경우 해외 연구사이트 공모를 통해 10명을 선발해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대회는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 포교 △사물인터넷 · 스마트시티와 불교 △가상 ·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 5가지 소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5가지 소주제 맞춰 논문을 발표한다.

12월 2~3일 추계대회 앞두고
국내 발제자들 연구 방향 논의
해외 학자 10명도 공모로 참여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발제자들의 개별 연구 계획 등이 소개됐다. 최초로 인공지능의 불성에 대해 연구해 2008년 조계종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을 불교윤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고와 지능을 가진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중생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불교철학과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 또한 한성자(태국 마히돌대)는 번뇌의 유무가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대척점이 됨을 확인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구 전남대 교수는 디지털 사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교 접근성을,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사찰 건축 구조 등을 연구 · 발표한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4차 산업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연기 사상만이 초지능 · 초연결성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은 세계 불교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는 7월 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교와 4차산업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도 문화 내 원효 위치 조명한다

보조사상연 · 순천대, 20~21일 공동 워크숍

남도 문화 안에 원효 스님의 위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남호현)는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순천 일원에서 공동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남도문화에서 원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순천대에서의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송광사, 불일암 순례 등이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이 '원효의 징성가에 대해',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지리산권 원효설화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은 석연경(시인, 청암대), 김춘호(원광대)가 맡는다.

학술대회에 앞서 보조사상연구원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반 참가자는 50,000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교수 · 강사 · 대학원생은 무료다. 참가자는 학회 간사에게 문자로 신청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 · 문의 (010)4494-1981

신성민 기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5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2017년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 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1)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2)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1)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2) 오디오 · 영상(비디오) 콘텐츠
상금 : 총액 4,000만 원 이내
오디오 · 영상(비디오)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제15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